

오직 하나의 길 실질적 삶 증명 변화를 주도하다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21세기 뉴리더'로 꼽히는 박옥수 목사가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주 시민들을 만난다. 기쁜소식전주교회는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성경세미나를 전북대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구에서 시작해 서울·광주·대전·인천·전주로 이어지는 한 달여간의 성경세미나는 시민들과 각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조명을 받았고 ▲기독교 지도자 포럼 ▲그라시아스합창단 찬양 ▲박옥수 목사 강연 ▲개인그룹별 신앙상담 순으로 매일 두 차례씩 3일 동안 진행된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는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 여러 매체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다.



▲휠체어를 넘어 일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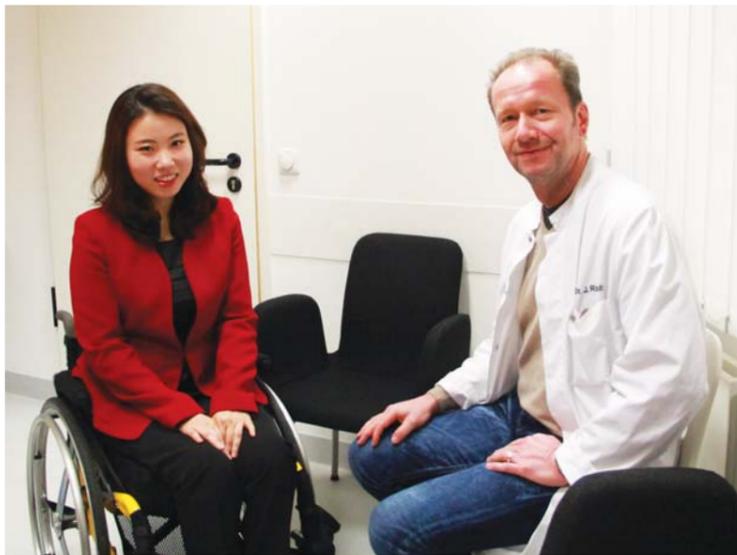
휠체어를 다리삼아 살아온 지 12년이 된 문혜진씨는 2007년 8월 사고로 인해 허반신이 마비됐다.

이후 괴롭고 어두운 절망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박옥수 목사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

2019년 3월! "혜진아, 올해는 내가 걷는 해야. 네가 온전히 걷고 뛸 수 있도록 장로님들과 기도하며 마음을 쏟기로 했어. 혜진아, 우리 함께 걸자!"라며 행복한 표정으로 박 목사의 말을 들은 문혜진씨는 다시금 희망의 씨앗을 마음에 심었다.

담당 의사는 "다친 지 10년 넘었고 병원에서 퇴원한지 5년이 지나서 걷는 것은 불가능하고 혜진 양은 불치병이기에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오더를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직립 상태로 걷는 재활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래프를 통해 다리에 힘이 실리는 것을 직접 보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질적으로 사는 삶을 인도 받고 있다.



문혜진씨와 10년전 수술을 해 준 독일 척추전문의 닥터 리홀트. 2007년 8월 사고로 인해 허반신이 마비돼 휠체어 신세를 지어오던 문씨는 현재 직립 보행 재활운동에 열중하고 있다.

▲죽음의 사선을 넘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굿뉴스코 해외봉사 7기 단원 최요한씨는 10대 때부터 마약에 빠지고 사춘 형이 마약으로 목숨을 잃는 것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머니의 권유로 해외봉사를 간 그는 오른쪽 발끝이 전갈에 쏘였고, 이로 인해 눈이 돌아가고 혀가 말리고 심장이 뛰지 않으며 소변과 대변이 다 나와 죽은 시체와 같았다.

할아버지 20, 체온은 17도로 내려간지라 의사들은 '곧 죽을 것이다'며 병원에서 쫓아냈으나 한 병원에 입원해 죽기를 기다리게 된다.

다급하게 한국의 박옥수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통화가 되었고 박 목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으로 전갈의 독을 이길 수 있음을 전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를 살려냈고, 현재는 미국에서 두 자녀의 아빠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온 '기쁜소식'을 전하는 박 목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며 오직 '복음'의 한 길만을 걷고 있다.

국내에서는 각 대도시의 대공연장, 체육관 등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고, 미국 뉴욕 메디슨스퀘어가든, 맨해튼 센터 등 세계적인 장소는 물론 아프리카나 남미의 대도시 전도 집회, 동남아 소규모 중소도시의 야외 막사 등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죄로 고통 받는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회의를 느낀 사람들, 인생의 여러 문제나 가정, 직장 문제로 고통받고 방황하는 사람들 등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쁜소식전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쁨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박옥수 목사는 성경세미나를 통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통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목회자들의 변화를 주도하는 CLF

변화의 바람은 기독교계 목회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CLF를 통해 세계 목회자들과의 모임이 활발히 이루지고 있는 가운데 박옥수 목사의 성경말씀은 목회자들의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 바르네쉬 주 침례회 일렉세임 일렉 회장은 "박옥수 목사의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다고

'휠체어 신세' 한 여성
박옥수 목사와 만나
희망의 말을 듣고
다시한번 일어서

해외봉사에 참여 도중
전갈의 독에 물린 남성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겨내



박옥수 목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만드블로 드라마니 총리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하면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이를 두려워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는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피지 감리교 전 총재 테비타 나완드라 바니바누아 비숍은 "박옥수 목사를 통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 놓았는지 자세히 알게 됐다"며 "요한 웨슬레가 깨달은 복음을 나도 깨닫게 됐다"고 기뻐하며 박옥수 목사와 선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간다 BAF목회자연합회 총회장 조셉 세투와다 목사는 "박옥수 목사의 삶은 인상적이다"며 "그의 삶 자체가 나에게 가르침이었고, 성경적 가르침의 핵심인 죄 사함에 관한 말씀은 우리 우간다 성도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CLF는 '오직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 아래 설립된 범세계적 목회자 연합이다. 2017년 3월 뉴욕에서 출범해 기독교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성경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목회를 실천하는 기독교 개혁을 통해 변화의 길을 선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